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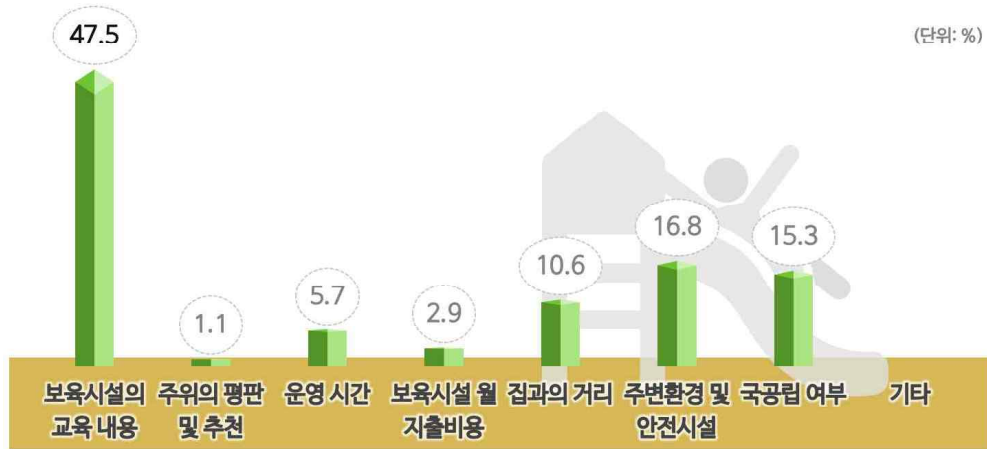
9 사회와 복지

1) 보육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주된응답) (공통)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선택 시 고려 사항, 「보육시설의 교육 내용」이 중요

- 「미취학 자녀가 있다」는 8.4%의 주민은,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선택 시 「보육시설의 교육 내용」을 47.5%로 가장 많이 고려하고, 「주변 환경 및 안전시설(16.8%)」, 「국공립 여부(15.3%)」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은 「주변 환경 및 안전시설」을 북부권 및 서남부권은 「보육시설의 교육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함

〈그림 9-1〉 보육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주된응답)



〈표 9-1〉 보육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주된응답)

(단위: %)

	계	미취학 자녀 있음											미취학 자녀 없음
		소계	보육 시설의 교육 내용	주위의 평판 및 추천	운영 시간	보육 시설 월 지출 비용	집과의 거리	주변 환경 및 안전 시설	국·공립 여부	기타			
2016년	100.0	8.4	100.0	47.5	1.1	5.7	2.9	10.6	16.8	15.3	-	91.6	
중부권	100.0	8.2	100.0	21.1	-	2.1	-	22.8	31.3	22.8	-	91.8	
북부권	100.0	9.6	100.0	66.1	4.1	2.1	2.7	8.6	8.2	8.3	-	90.4	
서남부권	100.0	7.8	100.0	59.8	-	11.9	6.0	-	8.9	13.3	-	92.2	
남자	100.0	9.2	100.0	46.6	1.9	5.6	-	7.9	22.8	15.2	-	90.8	
여자	100.0	7.5	100.0	48.9	-	5.8	7.0	14.3	8.5	15.6	-	92.5	
15~29세	100.0	11.3	100.0	48.4	-	-	-	14.7	36.9	-	-	88.7	
30~39세	100.0	43.6	100.0	40.5	2.4	5.8	6.2	13.2	11.7	20.3	-	56.4	
40~49세	100.0	17.9	100.0	61.2	-	4.8	-	5.8	15.2	13.1	-	82.1	
50~59세	100.0	2.2	100.0	29.5	-	30.6	-	-	-	39.9	-	97.8	
60세 이상	100.0	0.1	100.0	100.0	-	-	-	-	-	-	-	99.9	

자료: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

2)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지출비용(가구주) (공통)

**국·공립 보육시설 월평균 지출 비용은 어린이집 4.2만원, 유치원 3.5만원
사립 보육시설 월평균 지출 비용은 어린이집 8.6만원**

○ 미취학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육 중」 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89.3%로 나타남

- 국·공립 보육시설의인 어린이집에 보육하는 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1.2명, 월평균 지출 비용은 4.2만원이며, 유치원에 보육하는 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1.1명, 월평균 지출 비용은 3.5만원으로 나타남
- 사립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보육하는 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1.7명, 월평균 지출 비용은 8.6만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월평균 지출비용 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9-2〉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지출비용(가구주)



〈표 9-2〉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지출비용(가구주)

(단위: %, 명, 만원)

	계	보육중인 자녀 있음	국·공립 보육시설				사립보육시설				보육중인 자녀 없음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평균 자녀수	월평균 지출 비용	평균 자녀수	월평균 지출 비용	평균 자녀수	월평균 지출 비용	평균 자녀수	월평균 지출 비용	
2016년	100.0	89.3	1.2	4.2	1.1	3.5	1.7	8.6	-	-	10.7
중 부 권	100.0	81.4	1.4	9.5	1.0	10.2	2.0	10.0	-	-	18.6
북 부 권	100.0	83.5	1.5	4.9	1.0	5.0	1.5	7.5	-	-	16.5
서 남 부 권	100.0	100.0	1.0	0.9	1.2	0.0	-	-	-	-	-
남 자	100.0	88.8	1.3	3.2	1.1	3.7	1.7	8.6	-	-	11.2
여 자	100.0	100.0	1.0	30.0	1.0	0.0	-	-	-	-	-
15~29세	100.0	100.0	2.0	0.0	-	-	-	-	-	-	-
30~39세	100.0	77.6	1.1	8.2	1.0	8.4	1.5	7.5	-	-	22.4
40~49세	100.0	95.7	1.1	3.6	1.2	0.5	2.0	10.0	-	-	4.3
50~59세	100.0	100.0	1.5	0.0	1.0	0.0	-	-	-	-	-
60세 이상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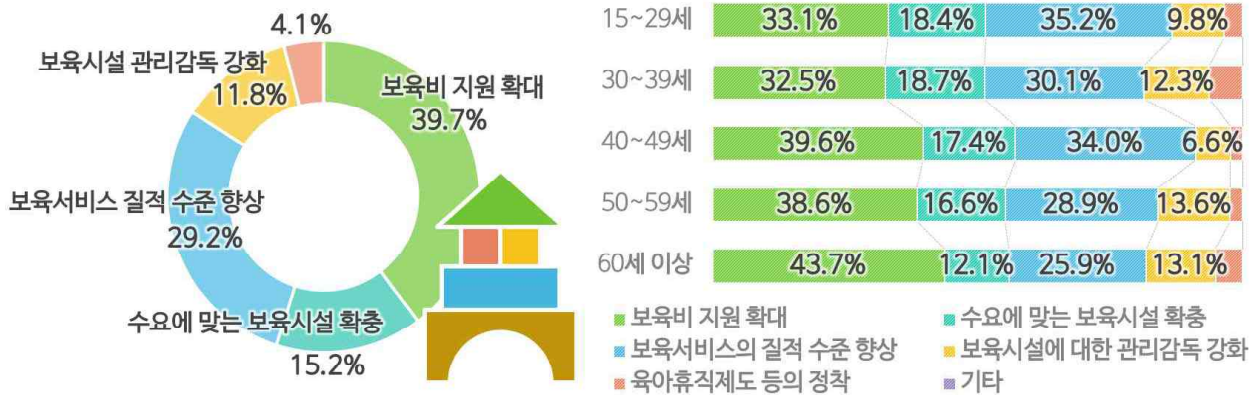
자료: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
주: 미취학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주

3)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공통)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육 문제는 「보육비 지원 확대」 39.7%

-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육 문제로 「보육비 지원 확대」가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9.2%)」, 「수요에 맞는 보육시설 확충(15.2%)」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보육비 지원 확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육 문제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9세 이상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그 외 연령층은 「보육비 지원 확대」가 각각 높게 나타남

〈그림 9-3〉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표 9-3〉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단위: %)

	계	보육비 지원 확대	수요에 맞는 보육시설 확충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육아휴직제도 등의 정착	기타
2016년	100.0	39.7	15.2	29.2	11.8	4.1	-
중부권	100.0	39.5	22.1	24.8	10.4	3.3	-
북부권	100.0	49.1	14.1	25.9	8.9	1.9	-
서남부권	100.0	33.9	9.3	35.6	15.0	6.2	-
남자	100.0	39.1	15.6	30.2	11.4	3.6	-
여자	100.0	40.2	14.8	28.1	12.2	4.6	-
15~29세	100.0	33.1	18.4	35.2	9.8	3.5	-
30~39세	100.0	32.5	18.7	30.1	12.3	6.3	-
40~49세	100.0	39.6	17.4	34.0	6.6	2.3	-
50~59세	100.0	38.6	16.6	28.9	13.6	2.4	-
60세 이상	100.0	43.7	12.1	25.9	13.1	5.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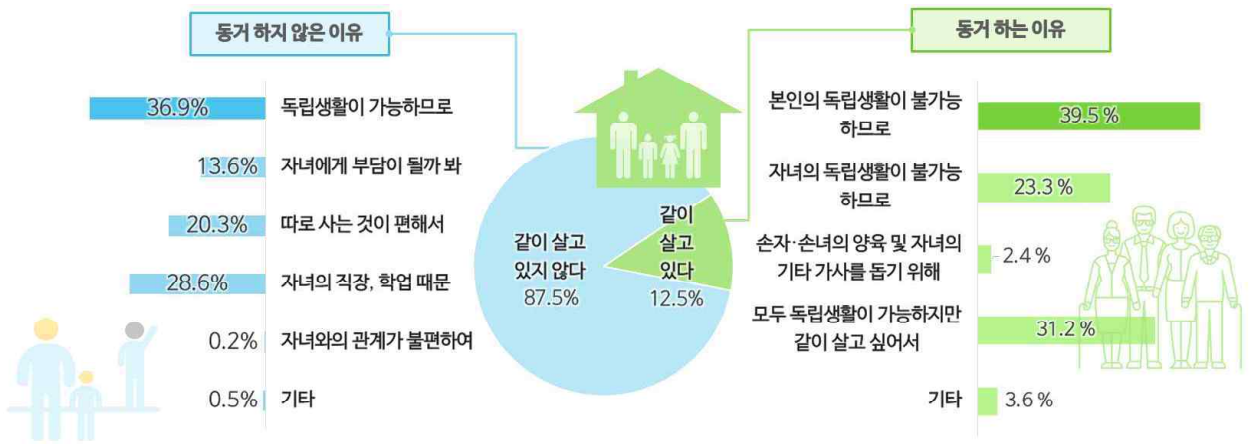
자료: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

4) 자녀와 동거 여부 및 동거 이유(65세 이상 인구, 주된응답) [특성]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는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39.5%)」
자녀와 동거 하지 않는 이유는 「독립생활이 가능하므로(36.9%)」**

- 65세 이상 노인이 자녀와 같이 사는 이유는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39.5%로 가장 많았고, 「모두 독립생활이 가능하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31.2%)」,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 하므로(23.3%)」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자녀와의 동거 이유는 중부권과 서남부권은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 하므로」, 북부권은 「모두 독립생활이 가능하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가 각각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자녀와 동거 이유는 65~69세는 「모두 독립생활이 가능하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39.3%)」, 70세 이상은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45.8%)」이 높게 나타남
- 65세 이상 노인이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이유는 「독립생활(수입, 건강 등)이 가능하므로」가 36.9%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직장, 학업 때문(28.6%)」,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20.3%)」 순으로 나타남
- 성별과 연령별로 살펴보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이유는 「독립생활(수입, 건강 등)이 가능 하므로」가 높게 나타남

〈그림 9-4〉 자녀와 동거 여부 및 동거 이유(65세 이상 인구)



〈표 9-4〉 자녀와 동거 여부 및 동거 이유(65세 이상 인구, 주된응답)

(단위: %)

	계	같이 살고 있다	소계	본인의 독립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자녀의 독립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손자·손녀의 양육 및 자녀의 기타 가사를 돕기 위해	모두 독립 생활이 가능 하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	자녀가 학생 또는 미성년자 이므로	기타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016년	100.0	12.5	100.0	39.5	23.3	2.4	31.2	-	3.6	87.5
중부권	100.0	8.7	100.0	60.6	10.2	-	29.2	-	-	91.3
북부권	100.0	15.3	100.0	32.9	24.0	3.3	39.8	-	-	84.7
서남부권	100.0	14.5	100.0	31.0	30.9	3.2	26.5	-	8.3	85.5
남자	100.0	7.7	100.0	27.8	22.5	-	44.9	-	4.9	92.3
여자	100.0	15.6	100.0	43.2	23.6	3.1	26.8	-	3.2	84.4
65세 이상	100.0	12.5	100.0	39.5	23.3	2.4	31.2	-	3.6	87.5
65~69세	100.0	8.2	100.0	6.6	40.2	-	39.3	-	13.9	91.8
70세 이상	100.0	13.9	100.0	45.8	20.1	2.8	29.6	-	1.6	86.1

자료: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

〈표 9-5〉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이유(65세 이상 인구, 주된응답)

(단위: %)

	계	같이 살고 있지 않다	소계	독립생활(수입, 건강 등)이 가능하므로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 봐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자녀의 직장, 학업 때문	자녀(며느리, 사위포함)와의 관계가 불편하여	기타
2016년	100.0	87.5	100.0	36.9	13.6	20.3	28.6	0.2	0.5
중부권	100.0	91.3	100.0	42.6	9.2	28.4	19.4	-	0.5
북부권	100.0	84.7	100.0	24.9	14.8	13.7	46.0	-	0.6
서남부권	100.0	85.5	100.0	38.6	17.5	15.6	27.4	0.5	0.5
남자	100.0	92.3	100.0	38.2	11.1	17.7	31.4	0.4	1.2
여자	100.0	84.4	100.0	36.0	15.4	22.1	26.5	-	-
65세 이상	100.0	87.5	100.0	36.9	13.6	20.3	28.6	0.2	0.5
65~69세	100.0	91.8	100.0	39.4	10.9	16.8	30.3	0.7	1.9
70세 이상	100.0	86.1	100.0	36.1	14.5	21.5	28.0	-	-

자료: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

5) 향후 자녀와 동거의향(65세 이상 인구) (특성)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 66.3%

- 65세 이상 노인은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 33.7%, 「같이 살고 싶지 않다」 66.3%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같이 살고 싶다」 는 여자 38.1%, 남자 26.9%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면 장래에 살고 싶은 곳은 「자기 집」 이 8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로·요양시설(18.5%) 순으로 나타남

〈그림 9-5〉 향후 자녀와 동거의향(65세 이상 인구)



〈표 9-6〉 향후 자녀와 동거의향(65세 이상 인구)

(단위: %)

	계	같이 살고 싶다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소계 ¹⁾	자기 집	양로·요양 시설	기타
2016년	100.0	33.7	66.3	100.0	81.3	18.5	0.2
중부권	100.0	31.2	68.8	100.0	81.9	18.1	-
북부권	100.0	34.7	65.3	100.0	78.6	20.6	0.8
서남부권	100.0	35.6	64.4	100.0	82.5	17.5	-
남자	100.0	26.9	73.1	100.0	81.2	18.3	0.4
여자	100.0	38.1	61.9	100.0	81.4	18.6	-
65세 이상	100.0	33.7	66.3	100.0	81.3	18.5	0.2
65~69세	100.0	25.6	74.4	100.0	83.8	15.4	0.7
70세 이상	100.0	36.3	63.7	100.0	80.4	19.6	-

자료: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

주1)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경우 장래 살고 싶은 장소를 답변한 사람

6) 65세 이상 부모와 부양 여부 및 동거 시 불편한 점(가구주) [특성]

65세 이상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불편한 점은 「경제적 부담(17.0%)」

- 65세 이상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가구주가 느끼는 불편한 점은 「경제적 부담」이 17.0%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 구조(개인 사생활)(14.3%)」, 「부모와 자식갈등(7.7%)」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와 50대는 「경제적 부담」, 40대는 「주택 구조(개인 사생활)」, 60세 이상은 「부모와 자식 갈등」이 불편하다고 느낌

〈그림 9-6〉 65세 이상 부모 부양 여부 및 동거 시 불편한 점



〈표 9-7〉 65세 이상 부모 부양 여부 및 동거 시 불편한 점(가구주)

(단위: %)

	계	같이 살고 있다	소계	불편한 점 있음						불편한 점 없음	같이 살고 있지 않다	부모님 안 계심 (배우자 포함)
				주택 규모	주택 구조 (개인 사생활)	경제적 부담	부모와 자식 갈등	기타				
2016년	100.0	6.4	100.0	50.4	6.9	14.3	17.0	7.7	4.5	49.6	33.9	59.7
중 부 권	100.0	5.3	100.0	50.6	7.1	14.6	7.1	7.1	14.6	49.4	33.1	61.5
북 부 권	100.0	8.1	100.0	50.7	8.6	8.6	27.9	5.6	-	49.3	31.5	60.3
서 남 부 권	100.0	6.3	100.0	49.9	5.3	18.7	16.0	9.8	-	50.1	36.2	57.5
남 자	100.0	8.0	100.0	49.6	7.3	13.0	16.5	8.1	4.7	50.4	40.0	52.0
여 자	100.0	1.4	100.0	65.7	-	39.3	26.4	-	-	34.3	14.2	84.4
15~29세	100.0	-	-	-	-	-	-	-	-	-	100.0	-
30~39세	100.0	15.6	100.0	50.0	-	-	50.0	-	-	50.0	81.3	3.1
40~49세	100.0	9.8	100.0	80.9	11.4	39.0	11.4	-	19.1	19.1	76.7	13.5
50~59세	100.0	11.3	100.0	43.0	10.2	4.9	17.7	10.2	-	57.0	51.0	37.8
60세 이상	100.0	2.5	100.0	31.4	-	15.0	-	16.4	-	68.6	8.7	88.8

자료: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

7) 노후 준비 여부 및 노후 준비 방법(19세 이상 가구주) [특성]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52.8%)」,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14.7%)」 순

-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되어) 있는 가구주는 52.0%, 노후 준비방법은 「국민연금(52.8%)」,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14.7%)」, 「사적연금(12.0%)」 순으로 나타남
-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62.8%)」, 「준비 능력 부족(17.7%)」, 「앞으로 준비할 계획(13.4%)」 순으로 나타남

〈그림 9-7〉 노후 준비 여부 및 노후 준비 방법(19세 이상 가구주)



〈표 9-8〉 노후 준비 여부 및 노후 준비 방법(19세 이상 가구주, 주된응답)

(단위: %)

	계	준비하고(되어) 있음	노후 준비 방법								
			소계	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급여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등	기타
2016년	100.0	52.0	100.0	52.8	8.9	12.0	4.8	14.7	5.4	-	1.5
19~29세	100.0	100.0	100.0	100.0	-	-	-	-	-	-	-
30~39세	100.0	58.5	100.0	54.7	26.5	18.8	-	-	-	-	-
40~49세	100.0	64.1	100.0	35.9	18.5	18.1	9.0	9.3	6.1	-	2.9
50~59세	100.0	62.7	100.0	51.0	6.1	17.8	5.3	16.4	2.5	-	0.9
60세 이상	100.0	42.7	100.0	59.4	4.3	5.2	3.5	18.4	7.8	-	1.4

〈표 9-9〉 노후 준비 여부 및 노후 준비 방법(19세 이상 가구주, 주된응답)(계속)

(단위: %)

	계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음	준비하지 않는 이유				
			소계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능력 부족	자녀에게 의탁
2016년	100.0	48.0	100.0	62.8	13.4	17.7	6.0
19~29세	100.0	-	-	-	-	-	-
30~39세	100.0	41.5	100.0	70.4	22.1	7.5	-
40~49세	100.0	35.9	100.0	36.9	52.2	10.9	-
50~59세	100.0	37.3	100.0	68.5	23.0	7.5	1.0
60세 이상	100.0	57.3	100.0	65.1	3.3	22.6	9.0

자료: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

8) 노후 준비 여부 및 노후 준비 방법(19세 이상 인구) [특성]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50.9%)」,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18.2%)」 순

- 신안군 19세 이상 인구 중 46.9%가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고 응답하였고, 주된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 이 5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노후를 준비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57.6%)」, 「앞으로 준비할 계획(18.5%)」, 「준비 능력 부족(18.3%)」 순으로 나타남

〈그림 9-8〉 노후 준비 여부 및 노후 준비 방법(19세 이상 인구)



〈표 9-10〉 노후 준비 여부 및 노후 준비 방법(19세 이상 인구, 주된응답)

(단위: %)

	계	준비하고(되어) 있음	소계	노후 준비 방법							
				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급여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등	기타
2016년	100.0	46.9	100.0	50.9	7.6	14.1	3.1	18.2	4.7	0.3	1.0
19~29세	100.0	20.1	100.0	43.1	-	27.1	-	29.8	-	-	-
30~39세	100.0	51.4	100.0	50.4	11.8	20.7	-	17.0	-	-	-
40~49세	100.0	60.4	100.0	35.7	16.9	17.0	7.1	15.7	3.9	1.9	1.9
50~59세	100.0	59.7	100.0	53.7	5.2	18.1	3.4	16.0	2.5	-	1.1
60세 이상	100.0	41.4	100.0	56.6	4.7	7.2	2.3	19.9	8.3	-	0.9

〈표 9-11〉 노후 준비 여부 및 노후 준비 방법(19세 이상 인구, 주된응답)(계속)

(단위: %)

	계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음	소계	준비하지 않는 이유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능력 부족	자녀에게 의탁
2016년	100.0	53.1	100.0	57.6	18.5	18.3	5.6
19~29세	100.0	79.9	100.0	37.0	31.9	31.0	-
30~39세	100.0	48.6	100.0	40.7	49.4	10.0	-
40~49세	100.0	39.6	100.0	49.8	40.3	10.0	-
50~59세	100.0	40.3	100.0	65.3	23.4	10.7	0.6
60세 이상	100.0	58.6	100.0	65.4	3.6	20.3	10.8

자료: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

9) 노후 요양 장소(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견해 (특성)

노후 요양 장소(공동생활의 집)에 입소할 의향이 「있다」 29.5%

- 노후 요양 장소(공동생활의 집)에 입소할 의향 「있다」 는 29.5%로 나타났으며, 희망 입소 인원은 「4~5명(54.0%)」, 「6~10명(28.2%)」, 「11~15명(8.8%)」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노후 요양 장소에 입소할 의향은 「중부권」 28.8%, 「북부권」 31.2%, 「서남부권」 29.2%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입소의향 「있다」 는 40대(38.2%)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희망 입소인원은 30대 「6~10명」, 그 외 연령층은 「4~5명」 이 함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9-9〉 노후 요양 장소(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견해



〈표 9-12〉 노후 요양 장소(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견해

(단위: %)

	계	입소의향 있음							없음
		소계	4~5명	6~10명	11~15명	16~20명	기타		
2016년	100.0	29.5	100.0	54.0	28.2	8.8	8.2	0.9	70.5
중부권	100.0	28.8	100.0	63.0	30.5	3.1	1.0	2.4	71.2
북부권	100.0	31.2	100.0	27.1	23.4	24.8	24.6	-	68.8
서남부권	100.0	29.2	100.0	63.4	29.1	3.4	4.0	-	70.8
남자	100.0	28.9	100.0	53.6	29.3	8.3	8.0	0.8	71.1
여자	100.0	30.2	100.0	54.5	27.0	9.3	8.3	0.9	69.8
15~29세	100.0	24.8	100.0	76.6	23.4	-	-	-	75.2
30~39세	100.0	23.4	100.0	43.8	48.8	7.4	-	-	76.6
40~49세	100.0	38.2	100.0	54.8	28.7	3.5	11.6	1.3	61.8
50~59세	100.0	32.7	100.0	60.2	21.2	6.8	10.6	1.1	67.3
60세 이상	100.0	28.3	100.0	45.9	29.4	14.7	9.2	0.9	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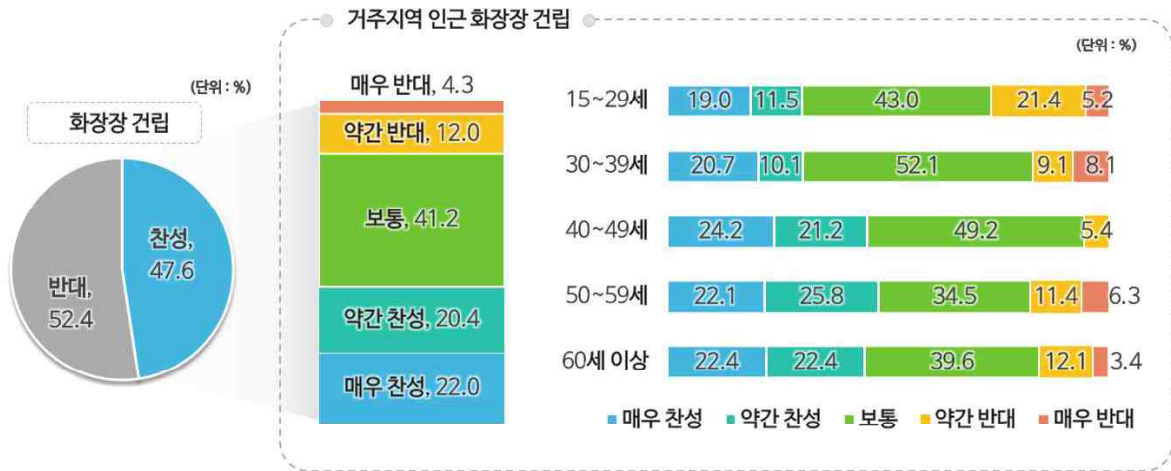
자료: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

10) 화장장 건립에 대한 의견 (특성)

신안군내 화장장 건립에 대해 「찬성(47.6%)」, 「반대(52.4%)」

- 신안군내 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찬성」 47.6%, 「반대」 52.4%이고, 찬성하는 사람 중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화장장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 「찬성」 42.4%, 「반대」 16.4%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 및 북부권은 화장장 건립에 관하여 「반대」, 서남부권은 「찬성」 이 각각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여자 모두 화장장 건립에 관하여 「반대」 가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9세, 40대와 50대는 화장장 건립에 관하여 「반대」, 30대 및 60세 이상은 「찬성」 이 높게 나타남

〈그림 9-10〉 화장장 건립에 대한 의견



〈표 9-13〉 화장장 건립에 대한 의견 (단위: %)

	계	찬성	거주지역 인근에 화장장 건립에 대한 의견								반대
			소계	찬성	매우 찬성	약간 찬성	보통	반대	약간 반대	매우 반대	
2016년	100.0	47.6	100.0	42.4	22.0	20.4	41.2	16.4	12.0	4.3	52.4
중부권	100.0	42.4	100.0	45.8	20.9	25.0	44.4	9.7	6.8	2.9	57.6
북부권	100.0	47.6	100.0	35.2	16.9	18.3	42.0	22.8	15.0	7.8	52.4
서남부권	100.0	52.4	100.0	43.8	25.7	18.2	38.3	17.8	14.4	3.4	47.6
남자	100.0	49.7	100.0	41.8	22.7	19.1	44.4	13.9	10.6	3.3	50.3
여자	100.0	45.1	100.0	43.2	21.1	22.1	37.4	19.4	13.8	5.6	54.9
15~29세	100.0	40.1	100.0	30.4	19.0	11.5	43.0	26.6	21.4	5.2	59.9
30~39세	100.0	52.3	100.0	30.8	20.7	10.1	52.1	17.2	9.1	8.1	47.7
40~49세	100.0	38.5	100.0	45.5	24.2	21.2	49.2	5.4	5.4	-	61.5
50~59세	100.0	48.5	100.0	47.8	22.1	25.8	34.5	17.7	11.4	6.3	51.5
60세 이상	100.0	51.3	100.0	44.9	22.4	22.4	39.6	15.5	12.1	3.4	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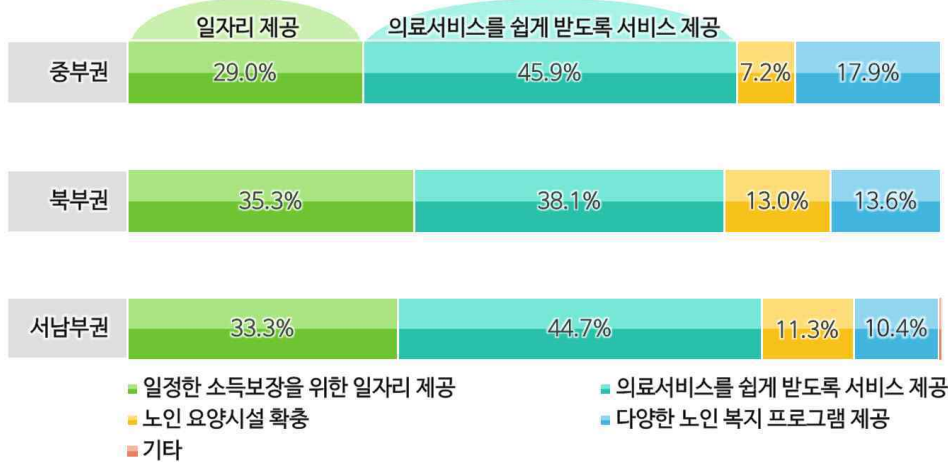
자료: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

11)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노인복지 사업 (특성)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노인복지 사업은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도록 서비스 제공」

-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도록 서비스 제공」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정한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제공(32.2%)」,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제공(1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 북부권, 서남부권 모두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도록 서비스 제공」이 높게 나타남

〈그림 9-11〉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노인복지 사업



〈표 9-14〉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노인복지 사업

(단위: %)

	계	일정한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제공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도록 서비스 제공	노인 영양시설 확충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제공	기타
2016년	100.0	32.2	43.6	10.2	13.9	0.1
중부권	100.0	29.0	45.9	7.2	17.9	-
북부권	100.0	35.3	38.1	13.0	13.6	-
서남부권	100.0	33.3	44.7	11.3	10.4	0.4
남자	100.0	31.0	43.1	11.2	14.4	0.3
여자	100.0	33.5	44.1	9.0	13.4	-
15~29세	100.0	47.4	30.7	9.8	12.1	-
30~39세	100.0	40.4	35.9	3.2	19.0	1.5
40~49세	100.0	26.0	47.1	11.9	15.0	-
50~59세	100.0	37.1	37.9	9.3	15.7	-
60세 이상	100.0	25.2	50.8	11.6	1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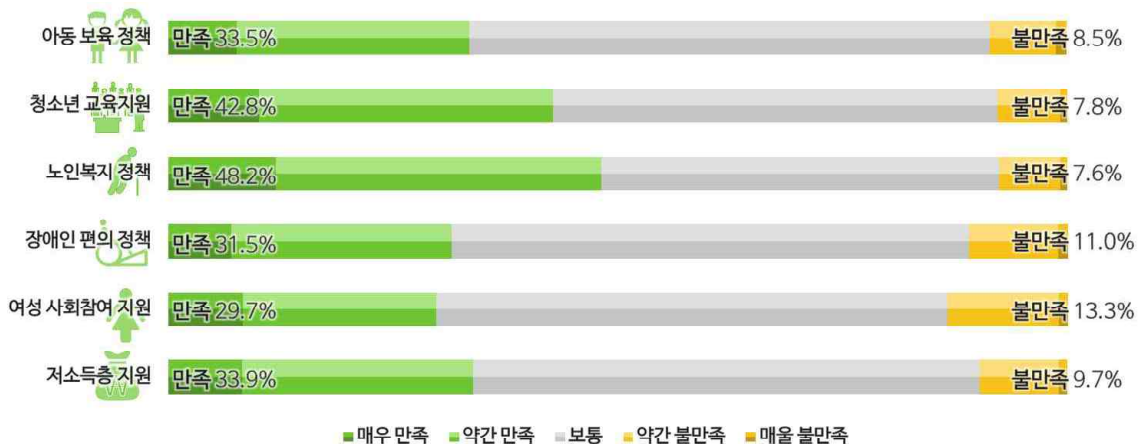
자료: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

12) 사회복지 정책 만족도 (특성)

사회복지 정책 중 '노인복지 정책' 만족도가 가장 높아

- 사회복지 정책 분야별 만족는 「노인복지 정책」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 교육지원(42.8%)」, 「저소득층 지원(33.9%)」, 「아동 보육 정책(33.5%)」, 「장애인 편의 정책(31.5%)」, 「여성 사회참여 지원(29.7%)」 순으로 나타남
- 아동 보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33.5%, 「보통」 57.9%, 「불만족」 8.5%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 31.5%, 북부권 38.5%, 서남부권 32.4%가 「만족」 한다고 나타남
-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2.8%, 「보통」 49.4%, 「불만족」 7.8%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 38.8%, 북부권 39.4%, 서남부권 48.7%가 「만족」 한다고 나타남
-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8.2%, 「보통」 44.2%, 「불만족」 7.6%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 55.8%, 북부권 53.0%, 서남부권 37.9%가 「만족」 한다고 나타남
- 장애인 편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31.5%, 「보통」 57.6%, 「불만족」 11.0%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 38.8%, 북부권 31.6%, 서남부권 24.4%가 「만족」 한다고 나타남
- 여성 사회참여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29.7%, 「보통」 56.9%, 「불만족」 13.3%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 33.8%, 북부권 32.0%, 서남부권 24.5%가 「만족」 한다고 나타남
-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33.9%, 「보통」 56.4%, 「불만족」 9.7%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 33.3%, 북부권 41.1%, 서남부권 30.0%가 「만족」 한다고 나타남

〈그림 9-12〉 사회복지 정책 만족도



〈표 9-15〉 사회복지 정책 만족도

(단위: %)

	계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아동 보육 정책	100.0	33.5	7.6	25.9	57.9	8.5	7.3	1.2
중 부 권	100.0	31.5	7.8	23.7	65.4	3.2	3.0	0.2
북 부 권	100.0	38.5	11.0	27.5	44.2	17.3	14.0	3.4
서 남 부 권	100.0	32.4	5.3	27.1	59.4	8.2	7.3	0.9
남 자	100.0	33.9	7.3	26.6	56.7	9.4	8.4	1.1
여 자	100.0	33.1	8.0	25.2	59.4	7.5	6.1	1.4
청소년 교육 지원	100.0	42.8	10.1	32.7	49.4	7.8	7.0	0.8
중 부 권	100.0	38.8	8.9	29.9	59.0	2.2	2.0	0.2
북 부 권	100.0	39.4	13.8	25.6	43.2	17.5	15.7	1.8
서 남 부 권	100.0	48.7	8.9	39.8	44.1	7.1	6.4	0.7
남 자	100.0	44.0	10.8	33.2	47.4	8.6	7.8	0.8
여 자	100.0	41.5	9.2	32.2	51.6	6.9	6.2	0.7
노인 복지 정책	100.0	48.2	12.0	36.2	44.2	7.6	6.8	0.8
중 부 권	100.0	55.8	13.0	42.8	40.7	3.6	3.6	-
북 부 권	100.0	53.0	17.6	35.4	32.2	14.8	12.6	2.2
서 남 부 권	100.0	37.9	7.6	30.3	55.0	7.1	6.3	0.8
남 자	100.0	49.0	11.9	37.0	43.0	8.0	7.2	0.8
여 자	100.0	47.3	12.1	35.2	45.5	7.2	6.3	0.9
장애인 편의 정책	100.0	31.5	7.0	24.5	57.6	11.0	9.9	1.1
중 부 권	100.0	38.8	7.9	30.9	57.4	3.8	3.8	-
북 부 권	100.0	31.6	10.5	21.1	46.2	22.2	19.2	3.0
서 남 부 권	100.0	24.4	3.9	20.5	64.7	10.9	9.9	0.9
남 자	100.0	31.0	7.0	24.0	57.3	11.7	10.5	1.2
여 자	100.0	32.0	7.0	25.1	57.8	10.1	9.1	1.0
여성 사회참여 지원	100.0	29.7	8.3	21.5	56.9	13.3	12.4	1.0
중 부 권	100.0	33.8	11.0	22.7	62.4	3.8	3.6	0.2
북 부 권	100.0	32.0	10.7	21.3	46.5	21.6	19.0	2.6
서 남 부 권	100.0	24.5	4.1	20.4	58.1	17.3	16.6	0.7
남 자	100.0	30.4	8.4	22.0	57.3	12.3	11.2	1.2
여 자	100.0	29.0	8.1	20.9	56.5	14.5	13.7	0.7
저소득층 지원	100.0	33.9	8.2	25.7	56.4	9.7	8.8	0.9
중 부 권	100.0	33.3	9.5	23.8	61.1	5.6	5.6	-
북 부 권	100.0	41.1	11.2	29.9	39.7	19.2	16.3	2.9
서 남 부 권	100.0	30.0	5.0	24.9	62.3	7.7	7.3	0.5
남 자	100.0	35.4	8.5	27.0	54.2	10.4	9.5	0.9
여 자	100.0	32.1	7.9	24.3	58.9	9.0	8.2	0.8

자료: 2016년 신안군 사회조사